

‘21C비즈니스포럼-바른경영 위원회’ 토론회(5차)

지금 한국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 일시 : 2019. 9. 24(화) 18:00
- 장소 : 서라벌(한식당, 서초동소재)
- 주최 :  , 21C비즈니스포럼



■ ————— 순 서 ————— ■

■ 사 회

- 노 부 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주제발표

- 윤 종 록 (가천대 석좌교수 / 前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 토 론

- 노 부 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주제발표

나라를 창업한 리더십 시몬 페레스의 창세기	9
- 윤 종 록 (가천대 석좌교수 / 前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 토 론

시몬 페레스의 리더십: 한국의 미래에 주는 의미	23
- 노 부 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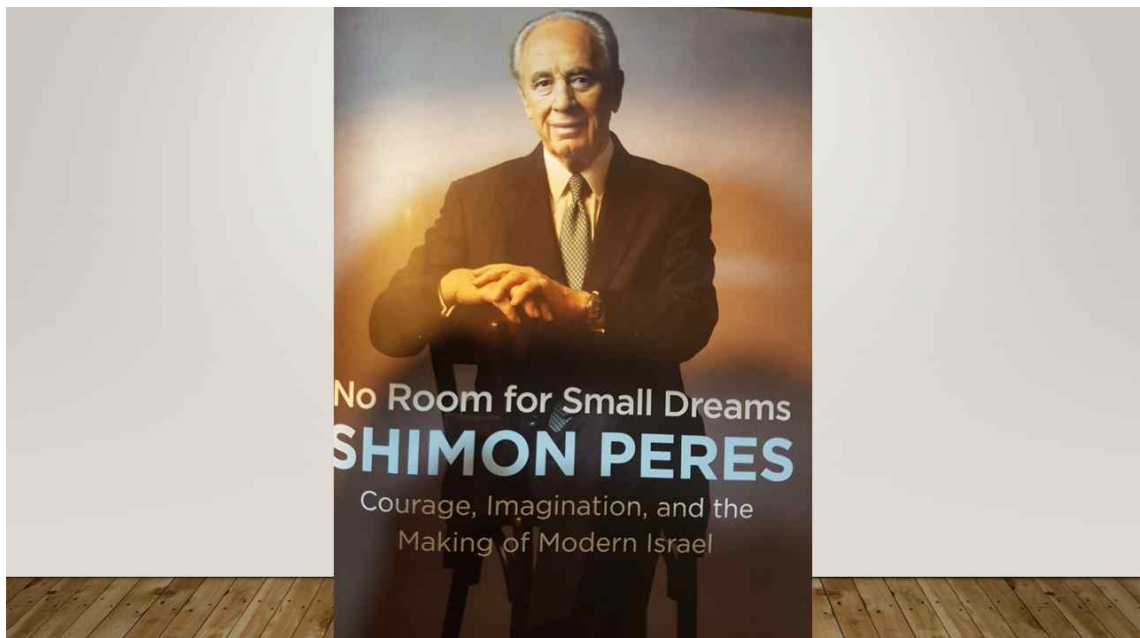
■ 윤 종 록 가천대 석좌교수

나라를 창업한 리더십 시몬 페레스의 창세기

신생국에서 세계최고의
창업국가에 이르는 혁신
70년

미래로의 여행, 상상으로
일군 혁신의 전도사

21세기의 다산, 정약용



Q The other side of Memory?



페레스의 70년

- 1923, 폴란드에서 출생
- 1934, 팔레스타인으로 이주
- 1944, 독립 이전 임시정부의 참모총장
- 1948, 초대 수상, '벵구리온'의 참모
- 1952, 국회의원 당선 후 10년의 장관
- 1977, 총리
- 1993, 오슬로협정 체결
- 1994, 노벨평화상
- 2007, 이스라엘 제 9대 대통령(7년)
- 2016, 서거(시몬 페레스 평화/혁신 센터 개관)

이스라엘 독립 70년, 그리고 <창업국가>

1913, 독일 이집트 대학을 전파 (Technion, 골다)

1948, UN결의에 의해, 1949년 건국 (AD70, 1948)

• 70개국에서 모여든 유대인 80만명

• 카부츠의 집단농장, 사회주의 체계

• 독립한 날이 바로 제1차 중동전쟁일

1967, 제3차 중동전쟁 (6일 전쟁)

1969, 우주과학관 설립 (마한)

1973, 제4차 중동전쟁 (올리브로 전쟁)

1977, 온다학신 (알파오트 등 올리브로 발족)

1978, 카부츠의 자율적의 업종

1992, 혁신창업국가를 위한 VC, Yozma 펀드 출범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 창업혁신경제의 마카를 발문음

PROMISED LAND를 LAND OF PROMISE로...

특자 전투기, 위성
발사체 개발

네마핀, 세계 최고의
물관리 기술

방울토마토, 사막의
물고기 등 육종기술
개발

기본이미징, 초소형
내시경
캠술 (PillCam)

M-Systems, USB 개발

체크포인트, 방화벽
개발

페이팔, 보안기술
혁신

모빌아이, 최고의
자율주행 솔루션

에보젠, 자연친화적
유전자 조작기술

아이언덤, 초
스피드 단거리
미사일 요격 기술

자체 원자력
안전기술로 핵
방어력 확보

지금 한국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페레스에게 있어서 젊음이란?



70년간 페레스를 움직인 세 단어



후츠파: Chutzpah
(저돌적 도전)

지칠 줄 모르는 도전
실패 후 다시
도전하는 용기



티쿤 올람: Tikkun Olam
(세상을 바꿈)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종교적 인간의 소명



로시 가돌: Rosh Gadol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

생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21세기, 페레스의 이스라엘 창세기



시오니즘의 완성

AD70-1948 디아스포라로부터
성지 회복



예미엘에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양육

독립후에론은 전쟁과 생존전략
제정(유대인) (후부츠)



전쟁 억제력

작은 나라의 필연적 선택, 핵무기



기술 패권주의

자원 부족의 선택, 두뇌 혁신을 통한
'창업국가' 건설



세계 평화의 길

영토외교가 아닌 과학의 힘으로
평화를 지향

키부츠, 사회주의 의 한계 극복



하드파워의 한계

근면, 자조, 협동생산의 한계
소련 붕괴 후 유입되는 연구와
경제 파탄



소프트파워로의 도약

소련 유입 과학자/의학자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 활용
국가경쟁 체계를 과학기술로
전환(수석과학관실 마련)
자본주의 점목과정에서 극렬한
변태를 노사정 위원회로 설득



글로벌 두뇌경쟁

지식자본을 경제화하기 위한
Industrial R&D법 제정
대학의 모든 기술/특허는
OTT에서 관리대행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로
 거듭나는 개기



창업국가로의 초석

요즈마 펀드
성공한 창업가들이
연세창업가가 되도록 세제
지원
용자가 아닌 투자의 금융
물장을 만들어 정부지원 중단

옴키푸르 전쟁의 실패를 엔테베작전 승리로 보상



3차 중동전쟁(6일전쟁)의
승리

주변 5개국의 불시
공격을 6일만에 격퇴
자신감 회복



4차 중동전쟁의 실패

프랑스의 배반으로
치절한 실패
자신감의 상실과
사회적 반성



담대한 엔테베 인질구출
작전으로 자신감 회복

패러스의 도전
라빈 수상을 포함, 전 각료의
반대를 설득할 대안을 마련
100% 실패 가능성을 완벽히
성공으로 바꾸어 국민적 자신감
회복

국가경영의 악보 를 만드는 수석과 학관실



150명의 임기 없는
최고 석학 집단

경제부총리 소속
현재는 혁신실(Office of
Innovation)로 개명
여러 이해관계 부서를 조율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만드는 싱크탱크

1악장(1970년대): 해수의
담수화 기술
2악장(1980년대): 원자력
안전 기술
3악장(1990년대): 인터넷
보안 기술
4악장(2000년대): 생명과학
기술



각 부처의 장관들은
악보에 맞추어 각자의
악기를 연주

모든 이슈는 수석과 학관실과
보조
소프트웨어가 강한
이스라엘을 한 목소리로
지향

‘핵 모호성’을 만들어낸 페레스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 프로젝트’

자강의 원성은 핵무기



프랑스의 도움

체널을 풀 가동하여 프랑스의 지원을 유도
페레스 스스로 원자력 기술을 공부하며 열망



열강들의 우려

캐네디의 돌발 질문: 시련도 부연도 안한 모호한 답변(중동에서 핵무기를 처음 꺼내 드는 쪽이 절대로 우리가 아닐 것입니다)



<핵 모호성>의 위력

4차 중동전쟁 중에도 적이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은 공격 못함
그 이후 이스라엘은 국지전 외에 전면전이 없었음

선 안보, 후 평화



핵 억제력이 필수

독립 이전 21살에 참모총장으로써 무기 밀수로 출발한 페레스
하드파위를 강조하며 테파로 출발한 추진파



이제는 평화의 길로

핵 억제력 과장/중단거리 방어체계를 갖추면서 평화주의자로 친화
철천지 원수를 찾아 직접 방문(위장/분장)
마음을 활짝 열고 심심한 평화의 메시지를 교류, 소통
이스라엘 극우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화협정
러변 수상 암살이라는 비극을 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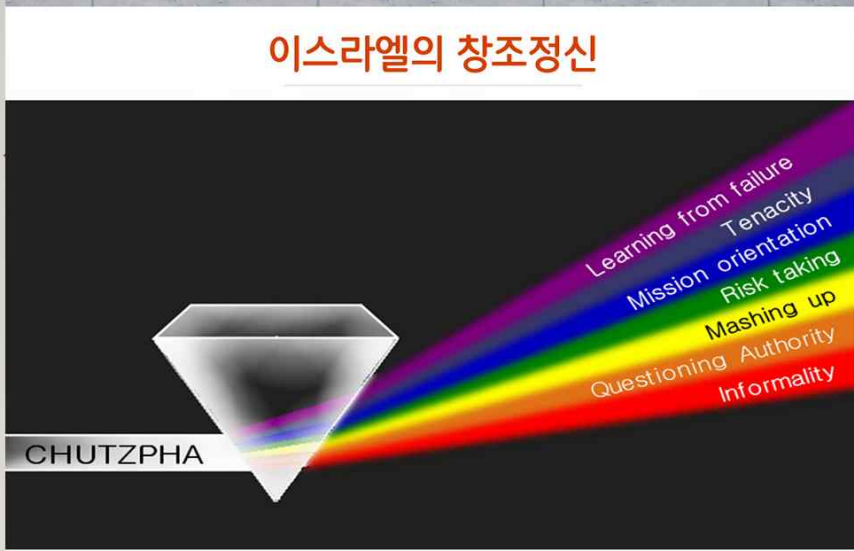
더 이상 국경이 필요 없는 세상

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
국토의 넓이가 아니라 과학기술 하나가 세상을 지배

노벨상과 유대인의 미스터리

노벨상	인구	두뇌	방아쇠를 당기는 힘
 지난 100년간 957명 수상자 중 205명 차지	 이스라엘에 750만, 전세계에 750만, 총 1500만명	 평균 IQ96(한국 세계 1위 106)	 좋은 총은 폭발의 필요조건에 불과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충분 조건 유대인의 국면성 후츠파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의 원천

이스라엘의 창조정신



CHUTZPHA

- Learning from failure
- Tenacity
- Mission orientation
- Risk taking
- Mashing up
- Questioning Authority
- Inform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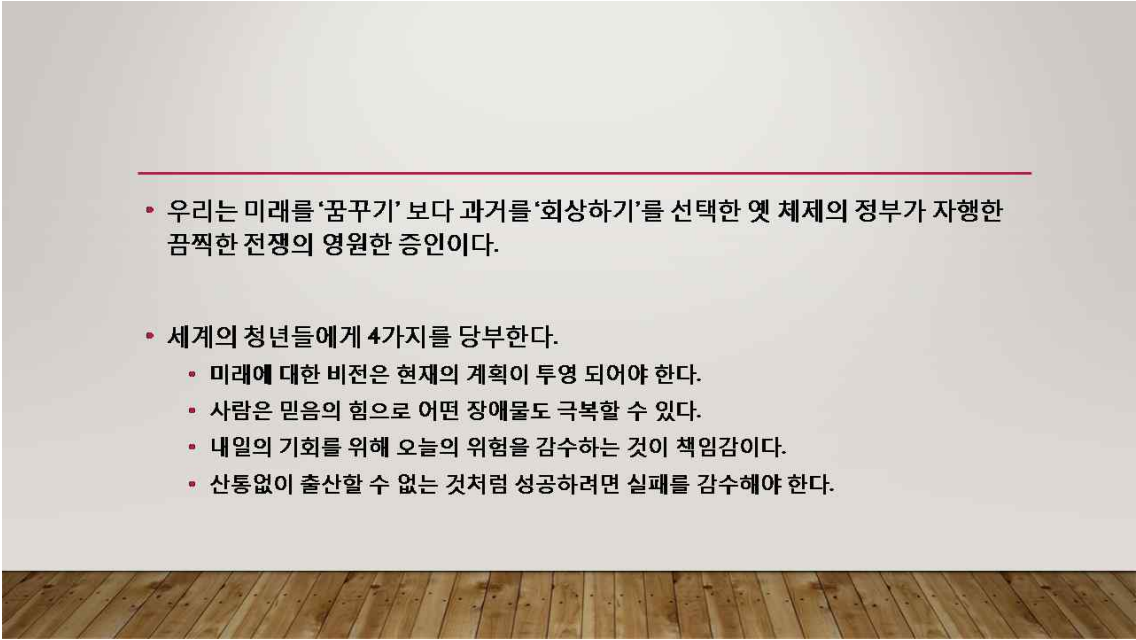
페레스의 어 록

-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 기억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 가는 것
 - 상상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이기 때문이다.
-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 부모님은 나를 그 어떤 경계나 울타리에 가두지 않으셨고 그저 내 호기심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으셨다.

-
- 큰 꿈을 좇고 그 대가를 치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미움 받지 않고 무난하게 어울리기 위해 야망을 줄이거나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다.
 - 엔테베 작전 성공에 숨겨진 더 큰 교훈은 미래를 어제와 다르게 보는 과감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 혁신이란 어느 시점에 완료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라 끝없이 추구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 하지만 이스라엘이 강해진 후에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삶을 바쳤다. 평화는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단지 정치적, 경제적 관심사가 아니라 도덕적, 역사적으로 선한 방향에 뿌리를 뒀다. 도덕적 우위는 힘의 근거가 된다.
- 좋은 삶은 일단 적을 만나지 않으면 평화를 향한 어떠한 진전도 이뤄낼 수가 없다.
- 영토의 시대는 확장이 목표였고 무력이 동원됐으나 이제 과학의 시대에 물려주고 있다. 과학은 국경도 국적도 필요 없다.

-
- 평화는 협상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기술의 진보는 국경, 언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다리를 만들어 냈다.
 - 격차가 전혀 없어도 관계를 구축할 수 없지만 격차가 너무 커도 불가능하다. 현재는 세대간의 격차가 국가간의 격차보다 크고 청년들이 정치인이나 장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과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주저할 것이 분명하다.

- 
- 우리는 미래를 ‘꿈꾸기’ 보다 과거를 ‘회상하기’를 선택한 옛 체제의 정부가 자행한 끔찍한 전쟁의 영원한 증인이다.
 - 세계의 청년들에게 4가지를 당부한다.
 - 미래에 대한 비전은 현재의 계획이 투영 되어야 한다.
 - 사람은 믿음의 힘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 내일의 기회를 위해 오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책임감이다.
 - 산통없이 출산할 수 없는 것처럼 성공하려면 실패를 감수해야 한다.

■ 정책토론회

토론

■ 노 부 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시몬 페레스의 리더십: 한국의 미래에 주는 의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노 부 호

‘21C비즈니스포럼-바른경영 위원회’ 토론회(5차)

주제: 지금 한국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리더의 자질

가치와 원칙, 비전

비전 제공자, 통찰력

전략 실행자, 추진력

동기부여자, 친화력

■ 국가 혁신

- 기술강국

원자로, 나노 기술, 뇌과학 기술

바다 우주 생명

- 경제강국

Silicon Wadi

· 노어 사회주의 국가 과학 기술 자본주의 국가

국가 운영 기초

- 혁신 성장 -- 분배 평등

- 미래 -- 과거

국민성

•후츠파

감사합니다

<MEMO>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21C비즈니스포럼 · 바른경영위원회

2019. 9. 24.